

‘까다로운’ 독자를 위한 글쓰기

이 학 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매체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텔레파시처럼 아무런 매개 없이 타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거나 서로 소통하는 일은 여전히 상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와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에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기도(祈禱)를 읽어내는 초인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며, <사토라레>에는 반대로 주인공의 내적인 언어를 주변 사람들이 듣는다는 초현실적인 설정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인간의 마음, 즉 사고와 정서, 의지 등이 온전히 언어로 ‘번역’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직접 ‘읽거나’ ‘듣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역설적이게도 ‘한길 사람 속’은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

의사 전달이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의미의 왜곡과 손실, 혹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말보다 의중을 헤아려야 한다’거나,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상용구는 화자의 의사와 발화된 말의 독자적인 의미 사이에 괴리가 흔히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언어 표현이 야기하는 크고 작은 오해를 겪어보았을 것이고, 그러한 만큼 발화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말과 문장을 구사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어느 경우보다 논리성과 명료성이 요구되는 학술적인 글쓰기



에는 정확한 정보와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초심자들에게 학술적인 글쓰기가 어려운 것도 그들이 학술적인 글이라는 특수하고 낯선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화자의 요건들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학술적인 글을 일상적인 대화나 여타의 사적인 글과 비교해보면 그 화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글은 말을 시각화한 것이지만 그 둘의 의사소통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말해지는 말은 씌어진 말과 달리 홀로 제시되는 법이 없다. 그것은 항상 발화자의 몸짓과 얼굴의 표정, 억양 등과 함께 주어지며, 이러한 풍부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능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술적인 발화보다 그 이외의 요소들이 더욱 많은 ‘말’을 해주기도 한다. 가령, 누군가가 화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고백해서가 아니라, 거친 동작과 일그러진 표정, 격앙된 어조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에는 이러한 컨텍스트가 제거되어 있다. 구술성과 문자성의 차이에 깊이 천착한 월터 옹(Walter J. Ong)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지적한 대로 “텍스트 속에서 말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사람은 어떠한 실재하는 컨텍스트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명료하게 되도록 말을 작용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 때문에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통신언어의 특징으로 이러한 구술성과 문자성의 결합 양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서은아의 『글쓰기로써 말하기 또는 네티즌의 펴글, 댓글, 베플, 아이디 그리고 이모티콘의 언어학적 분석』은 다양한 네티즌 언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모티콘, 아이디와 아바타, 의성어와 의태어의 다양한 변이형들은 모두 대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어지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인터넷의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입한 결과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정과 얼굴표정을 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이모티콘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아이디와 아바타, 의

성어와 의태어의 다양한 변이형 등은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네티즌이 고안해낸 기호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로써 말하기’의 습관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탓인지 학생들의 리포트에서도 구어적인 사고와 표현의 특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 입말의 습관대로 ‘아무튼’을 ‘암튼’으로, ‘즐거운’을 ‘즐건’으로 줄여 쓰거나 ‘썩소’, ‘광팬’ 등의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경우에서부터, 문장의 필수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장황하고 다변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인 탐구의 대상과 주체의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객관성보다 감정이입이 앞선다거나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집합적이고 상황의존적인 사고가 우세한 경우 등 월터 용이 지적한 구술문화적 특징이 자주 눈에 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구어적인 사고방식의 편린들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일수록 그 독자들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인물로 상정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 글을 읽을 독자들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상정해 볼 때”나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의 표현을 담고 있는 글은 그 독자를 대학생이나 수강생 혹은 담당 교수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특정하고 균질적인 독자를 염두에 둬으로써 텍스트에 구술성이 더욱 쉽게 섞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리포트를 실제로 읽게 될 독자와 리포트에 구조적으로 내포된 추상적인 독자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리포트의 서술자로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독자는 그 글의 발표를 실제로 듣거나 평가하는 학생들과 교수라기보다는 그 글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양인이다. 그래야만 리포트의 공적(公的)인 글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를 서술할 때 일반적인 교양인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의 필요성이나 그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로 부여된 토픽의 내용, 강의 시간에 공유된 지식 등은 강의의 담당교수나 수강생이라는 ‘특수 독자’만을 고



려한다면 리포트에 언급될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 독자들이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 개념들은 정의되어야 하고 논증 과정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과 수준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물리학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을 인문대 학생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써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글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존재할망정 리포트의 서술자는 충분히 광범위한 독자층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독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논문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경우에 ‘나’ 보다는 ‘우리’ 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 쓴다는 것은 하나의 전달행위로서 필자는 “논문의 견해가 독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술자가 독자들을 동반하고 논증과정에 참여하여 결론에 이르는 도정을 학술적인 글쓰기라고 인식한 것 같다. 이와 같은 에코의 논의를 보더라도 비가시적인 ‘동반자’ 인 독자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학술적인 글의 성격상,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캐묻고,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며 엄격한 논리적 해명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독자를 내포된 독자의 상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술적인 글의 서술자는 ‘사토라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들 또한 <브루스 올마이티>나 <왓 위민 원트>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자가 지닌 수중의 수단은 한없이 불완전한 문자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익명의 ‘까다로운’ 독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없이 세심하고 용의주도한 서술자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